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 이화래, 편집인 : 인동환
 편집 : 대외협력·홍보위원회
 (김태일·김현석·손영환·신찬석·정진철·조철훈·허진희·Hong Sok(Brian) Kim)

미래비전 정립을 위한 2014 청소년 진로탐색 캠프개최



■ 우리대학은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남부학술림에서 전라남도 광양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캠프를 개최하였다. 2014 광양시 고등학교 진로탐색캠프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상은 광양시 6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0명으로 2박 3일간 실시하였다. 이학래 학장은 환영사에서 “진로탐색캠프가 학생들의 미래 비전을 정립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이유를 발견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진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진로 준비방법에 대한 학습 기회를 부여받으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학업스트레스, 학습 및 생활관리, 대인관계)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조언과 교육을 제공받았다.

2014년도 제68회 후기학위수여식 개최



■ 2014년도 후기학위수여식이 8월 28일 교내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성낙인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최고의 지식은 사회봉사와 인류공헌을 위해 만들어 쓰이는 것이며, 훌륭한 인재는 지성과 함께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겸비한 선한 인재라며 민족의 동량, 사회의 중심으로 드높은 자부심을 갖되, 지식과 열정을 공동선을 위해 공헌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로 68회를 맞이하는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850명, 석사 989명, 박사 522명 등 총 2,361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 중 우리대학은 학사 78명, 석사 58명, 박사 38명을 배출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각자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한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여 농생대 위상을 빛낼 것이다. 또한 수석 졸업자로 농경제사회학부 박정현 학생이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표로 최우수상을 수여받았다.

김정한 교수, 학생처장 임명

■ 농업생명과학부 김정한 교수가 서울대학교 학생처장으로 임명되었다. 2014년 7월 26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2년간의 임기동안 학생지원과, 장학복지과와 학생소통팀 등 학생들의 대학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총괄한다. 김정한 교수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2년간 농생대 학생부학장을 역임했다.



〈주요내용〉

1~3면_농생대 헤드라인
 9면_언론에 비친 농생대

4~5면_농생대 인사이드
 10~11면_기금출연

6~8면_Interview
 12면_농생대 사람들

신임교수를 소개합니다.

서정용 교수 (농생명공학부)



서정용 교수가 2014년 9월 1일자로 농생명공학부 바이오펜레이션전공 부교수로 부임했다. 서정용 교수는 KAIST 화학과에서 학부,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캐나다 Univ. Alberta에서 박사후 연구원, LG생명과학연구원을 거쳐, 미국 NIH에서 Visiting Fellow로 근무하였고, 2009년부터 본교 농생명공학부 WCU교수 및 초빙교수로 재직하였다. 주 전공은 생물물리학이며, 핵자기공명분광학, 단백질과 바이오펜레이션 등의 과목을 담당한다.

저는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바이오펜레이션 전공에서 일을 해 오며 5년이 되었고, 이번에 자리를 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기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이끌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연구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해왔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를 이곳 농생대에서 보내게 된 것은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학문과 연구의 중심지인 우리 대학에서 제 인생의 꿈을 펼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단백질 분자구조와 결합방식을 규명하는 것으로 NMR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니만큼 활발히 교류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임하며, 훌륭하신 교수님들께 깊은 존경을 드리고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연 교수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윤희연 교수가 2014년 9월 1일자로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조경학전공 조교수로 부임했다. 윤희연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 Univ. of Penn.에서 석사를 마친 후 Wallace Roberts&Todd, LLC와 James Corner Field Operations, LLC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Harvard Univ.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재학 중 Harvard Univ.에서 Teaching Fellow로도 활동하였다. 주 전공은 도시 계획학이며, 조경 계획, 도시 조경론 등의 과목을 담당한다.

본교 조경학과의 합격증을 받아들고 기뻐하던 그때가 벌써 16년 전입니다. 이제 저도 머리 희끗한 중년이 되었고, 그때의 나와 같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위치에 임명되었으나, 저는 아직도 그들에게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학교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학문 발전의 프론티어에서 언제나 빠른 역사의 흐름을 경험하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젊음과 열정이 있어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지는 곳, 그래서 나의 나태해짐이 더욱더 용납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큰 기회를 주신 교수님들의 감사함을 생각하며, 언제나 부지런히 노력하는, 학생 같은 교수가 되겠습니다.

기창석 교수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기창석 교수가 2014년 9월 1일자로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소재공학전공 조교수로 부임했다. 기창석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 박사학위(석박통합)를 취득하였다. 이후 본교 지능형텍스타일시스템연구센터,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IUPUI(Indiana Univ-Purdue Univ. Indianapolis)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주 전공은 하이드로젤 기반 바이오소재이며, 생명분자공학개론 등의 과목을 담당한다.

학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모교의 교수가 된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과 기쁨입니다. 특히 학부와 대학원 시절 상록캠퍼스에서의 추억과 관악 이전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 때문인지 다시 오게 된 캠퍼스의 향취에 더욱 애착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학생이었을 때에는 박사학위를 받으며 나름 많은 시간 동안 학교에 있어서인지 학교가 많이 익숙했는데 지금 교수로서의 시작은 너무도 낯설고 부족하지만 합니다. 아마도 교수라는 직분의 무게를 이제 막 체감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선배 교수님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바라며 우리 농생대의 막내 교수로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비전을! 농생대 Global Challenger

미그로 협동조합, 스위스의 경관직불제, 미국의 농업클러스터까지, 우리 국경밖에는 농생대 학생들의 새로운 시야를 일깨워줄 수많은 현장들이 있다. 지난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농업현장도 많은 발전을 거듭했지만, 여전히 우리보다 농업선진국들이 많으며,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보고 배울 것들이 많다. 농생대에서는 학생들에게 그 새로운 시각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바로 Global Challenger(글로벌 챌린저)를 통해서다.

농생대에서는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 학생창의 연구 등 많은 학생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글로벌 챌린저다. 글로벌 챌린저는 농생대 재학생들에게 세계 농산업 관련 기관과 현장을 직접 탐방, 새로운 시각을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챌린저를 통해 학생들은 특정 농산업뿐만 아니라 농업유통, 국제개발 등 농산업에 걸친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 세계의 유명한 기관과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농생대에서는 선발된 학생들에게 경비를 지급하며,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산업을 바라보는 글로벌 마인드를 배양할 수 있다.

글로벌 챌린저는 2008년 1학기에 첫 모집을 시작했다. 매 학기마다 지속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0개 팀이 지원을 해 총 55개 팀, 137명의 학생이 탐방의 기회를 얻었다. 탐방국가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등을 걸쳐 총 18개국에 달한다. 주제 측면에서도 천일염, 중국의 차 산업 등 특정 농산업에 관련된 현장뿐만 아니라 미국 농과대학의 교육 현황 탐방, 농촌관광 정책, 미국의 콜드체인시스템, 심지어 캐나다의 친환경 목조 건축물에 대한 현장탐방까지 농산업 전반, 농촌 전반, 더 나아가 환경전반에 걸쳐 다양한 탐방시도가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입학진로정보실의 남중수 조교는 “재학생들이 자신이 선정한 주제로 국내외 실정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제한된 인원으로 어쩔 수 없이 탈락시켜야 할 때 미안한 감정이 든다”면서 “그렇지만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챌린저는 서울대학교 농생대 재학생 중 직전 이수학기 평점이 3.0 이상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탐방 프로그램 작성 및 지원을 통해 프레젠테이션에 합격하면 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경비는 탐방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아시아권은 팀당 200만원 이내, 미주 및 유럽은 팀당 4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탐방은 여름방학(7~8월)과 겨울방학(1~2월)에 진행되며, 탐방기간은 14일 이내다. 이번 학기에도 참가팀을 모집하며, 이번 학기에 선발된 팀은 이번 겨울방학에 탐방을 떠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생대 홈페이지(<http://cals.s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챌린저, 참가자들의 생생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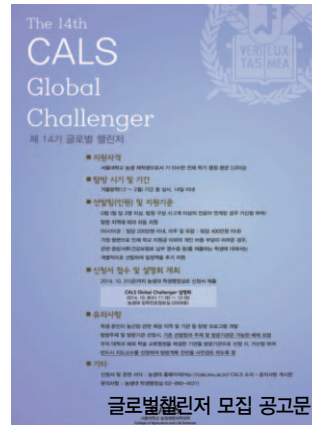
A1 : 농경제 09 박상석

A2 : 동물생명공학 12 허유경

Q1. 어떤 주제로 어느 나라, 어느 기관에 다녀오셨나요?

A1. 저희 팀의 주제는 ‘독일의 농촌관광 사례연구를 통한 한국의 농촌관광 산업 발전방향 모색’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독일농업협회(DLG), 솔트스베르크블리크 펜션, 쾰비히텔러란트 관광공사 등을 다녀왔습니다.

A2. ‘유럽의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탐방을 통한 국내 유제품 시장의 경쟁력



네덜란드 와게닝겐 농업대학



독일농업협회

강화 모색’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3개국에서 NIZO연구소, 와게닝겐 대학(Wageningen UR) 등을 다녀왔습니다.

Q2. 다녀온 후의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A1. 선발이 되고 나서도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막상 출국 날이 다 돼서야 우리 팀이 진짜로 글로벌 챌린저가 되었음을 느꼈어요. 외국으로 가는 건 처음이라 걱정이 많이 됐지만 그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다녀오고 나서는 탐방을 준비하면서 봤던 영상매체나 책 속의 여러 기관들을 직접 접하고 왔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스스로 기록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갖고 있던 외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독일을 탐방하면서 겪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 넓어졌습니다.

A2. 사실 작년 2학기에 준비를 하다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이번 1학기에는 미리미리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계획처럼 연락이 잘 되지지도 않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평창캠퍼스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도교수님께서 신경 써서 도와주시고, 와게닝겐 대학 de Vos 교수님과 NIZO 관계자분들의 협조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챌린저라는 프로그램으로 제 전공 및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직접 산업을 탐방할 수 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Q3.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의 좋은 점이 있다면?

A1.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접하곤 하는데,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이 그런 사례들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수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보고 노력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2. 글썽 프로그램은 학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연계된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하고 직접 현장을 탐방하는데 그 의미가 있고 실제로 큰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4.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A1. 유럽이나 미주 경우 비행기 값 및 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부여하지만,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 특성상 비행기를 출국 전 길어야 한두 달 전에 예매할 수밖에 없어 비행기 값 부담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기간을 앞당기거나 지원금을 조금 더 늘린다면 앞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A2.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일찍 진행하면 준비 기간이 시험기간이랑 겹치는 걸 방지하고 항공권이나 숙박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록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8월 25일 우리대학 203동 101호에서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및 일성장학금의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이 행사는 이현수 상록문화재단 이사장 및 장학금 출연자와 모교 이학래 학장을 비롯하여 여러 교수들이 참석하여 장학금을 받는 학부생 42명, 대학원생 20명을 축하, 격려하며 자리를 빛냈다. 류관희 상임이사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참석자 소개를 한 후, 이현수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학래 학장의 축사, 한인규 초대 이사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고 이어서 장학기금을 출연한 기탁자들이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이번 학기는 62명의 학생들이 대학원생은 1인당 250만원, 학부생은 1인당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받으며 총 131,000,000원의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난 후, 학부와 대학원 별로 사진 촬영을 하고 참석자 전원은 두레미담에서 축하 오찬을 함께 하였다. 이번 장학금 수여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상록문화재단장학금〉

승정선, 이보영, 한승현, 현신우(식물생산과학부) / 김준규, 원용찬, 김한규(산림과학부) / 권다혜, 김고운, 김우람, 김정은, 김지현, 박미성, 박수빈, 송은총, 송현정, 신용호, 이아름, 이유정, 이진, 이하영, 이호준, 임소현, 정경재, 정범구(농생명공학부) / 이인재, 허민주, 최승필, 허한결(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박민경, 박성훈, 윤해성(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 김재희, 소지섭, 우정민, 유창욱, 윤지윤(농경제사회학부) / 손규태, 최나영(농산업교육과) / 홍보익(고려대 컴퓨터학과)

〈일성장학금〉

김수현, 이우빈(식물생산과학부) / 강혜인, 이재연, 정현우, 조성환(산림과학부) / 고두현, 김성범, 원소영, 이동경, 정용민(농생명공학부) / 이도길, 이상연(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김영호, 정세웅, 최세은(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 김신혜, 박선진, 이재민, 최화영, 한기욱(농경제사회학부) / 권형구(농산업교육과)



졸업최우수 목운장학상 및 우수학문후속세대 장학금 수여식

우리대학은 8월 29일 200동 소회의실에서 졸업최우수 목운장학상 및 우수학문후속세대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한인규 이사장, 하종규 명예교수, 이승환 연구부학장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대학 후기 졸업자 중 본교 대학원 진학자 중에서 졸업학점이 제일 높은 학생에게 졸업최우수 목운장학상을 수여하며, 학문후속세대 장학금은 대한민국 농학발전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하여 우리대학 졸업생 중에서 농학분야에 진출하는 최우수 졸업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 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졸업최우수 목운장학상: 김 현(농생명공학부)

우수학문후속세대 장학금: 최우리(식물생산과학부) / 윤종원(농생명공학부) / 신성철(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제10회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생명공학캠프 개최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주관하는 제10회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생명공학캠프”가 8월 11일에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대학 교수 5명이 강의하고 재학생들의 멘토링으로 이어진 이번 행사는 4박 5일간 진행되었다. 생명공학캠프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공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유발하고 과학적 사고를 넓혀주는 기회를 부여하며 창의적 사고와 과학적 시각을 키워준다. 또한 생명공학 및 관련분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방학 진행되고 있다. 2박 3일 일정으로 2기에 걸쳐 45명의 학생들이 캠프에 참가하여 농생대 교수진의 특강을 듣고 실험실습에 참여하며, 농생명과학동기지원, 박물관 등 서울대 주요시설을 견학하였다.



수목원 숲체험 행사

수목원은 2014년 4월부터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장애아들에게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4 서울대학교 수목원 숲 체험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수목원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의 나무를 소개하고 숲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숲 체험 교육사업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모습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월별, 계절별, 연간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숲 체험 행사는 수목원 홈페이지 (<http://arbor.snu.ac.kr/>)를 통해 신청 받았으며, 지난 4월부터 10월 현재까지 16개의 기관들(지역아동센터, 장애복지센터)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였다.



BPCS (Better Process Control School) 교육프로그램 실시

식품바이오통합연구소(소장: 장판식 교수)에서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농업생명과학대학 203동 201호에서 국내 식품 관련 산업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BPCS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BPCS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저산성통조림, 산성화 식품에 대한 열처리 시스템, 산성화 및 밀봉 공정 등의 식품생산 공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관리자를 양성하며, 현재 우리나라 저산성 밀봉포장식품 공정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교육프로그램이다. 본 교육을 통하여 잘못된 제품설계 및 공정관리에서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저산성 밀봉포장식품을 감독 및 제어할 수 있는 국제적 인력을 양성하고, 적절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J제일제당, 롯데칠성, 농심, 풀무원, 파리크라상, 태경농산, 오투기, 동원 F&B, 천호식품, SPC 등 식품회사의 실무자들이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강사진으로는 해외에서 Prof. Barbara Rasco (Washington State University), Prof. Gleyne E. Bledsoe (Idaho University)를 초빙하였고, 본 연구소에서는 강동현 교수(농생명공학부)가 참여하였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조사기술 활용 심포지엄 개최

식품바이오통합연구소(소장: 장판식 교수)는 8월 29일 농업생명과학대학 203동 101호에서 경북대학교 식품생물산업연구소와 공동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조사기술 활용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언론 및 산업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빙하여 식품조사기술의 의의, 안전성, 관리현황, 응용기술, 조사시설 등에 대한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산업계에서의 현안과 식품조사기술의 활용방안, 소비자 수용성 증대를 위한 제언, 그리고 언론의 역할 및 활용 등을 두루 살펴보았으며, 마지막 시간에 열린 토론을 통해 식품조사기술의 타당성과 활용확대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으로 본 연구소는 식품조사기술 활용 저변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향후 국제통용기술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과 식품의 품질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식품업체의 대외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생대를 방문한 사람들



터키 Uludag University 농생대 방문 및 MOU 협정 체결

우리대학은 7월 9일 농생대 학장실 및 대회의실에서 터키 Uludag University 농생대 담당자들과 접견하였다. 터키 Uludag University 부총장, 농생대 학장, 농생대 국제교류담당 교수 등 총 3명이 방문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이학래 학장, 이상기 교무부학장, 전창후 학생부학장, 이승환 연구부학장이 참석하였다. 양교는 상호 발전적 국제 공동 연구의 추진과 함께 학술적 교류 협력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대학의 홍보 동영상상을 시청하였으며 대학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어졌다. 방문단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을 방문하여 첨단 분석기기를 살펴보고 설명을 들었다.



(주)오델-서울대 농생대, MOU 체결

우리대학은 7월 9일 (주)오델과 평창캠퍼스 실험목장 내 유가공실 설치를 위한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수 및 학생들의 교육·실습활용 및 산학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주)오델은 1991년에 설립된 회사로 피자토핑용 유가공품 생산을 시작으로 냉동식품 및 유럽명품을 생산하는 생산설비를 갖춘 유가공 제품 전문회사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서울대 농생대, MOU 체결

우리대학은 7월 10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축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과 교육, 보급 및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두 기관은 소, 닭, 돼지 등 가축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육종, 번식, 영양, 조사료, 유가공, 육가공 등 전통 축산학 및 생명공학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할 예정이다. 또 식품, 친환경축산, 동물병원 등 축산과 관련된 연계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토론회와 공동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생대 밴드의 자존심, 샌드페블즈를 만나다.

200여 명이 이어 온 44년의 전통

샌드페블즈는 농생대의 모든 동문들에게 매우 친숙한 밴드다. 지금도 새터(새내기 새로 배움터)의 둘째 날 밤을 빛내는 농생대를 대표하는 밴드며 과거 농대를 졸업한 선배들에게는 커다란 자랑이기도 하다. 1970년 윤장배(축산학과 70) 동문의 제안으로 결성된 샌드페블즈는 1977년 제1회 대학가요제에서 ‘나 어떡해’라는 곡으로 대상을 수상한 이후 대학가를 대표하는 밴드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도 실력을 인정받아 교내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마라톤 대회’와 같은 외부 행사에서도 공연을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동아리를 거쳐 간 200여 명의 회원들을 대표해 1년 동안 활동하는 멤버의 수는 총 6명이다. 샌드페블즈 정용빈(식품생명공학 13) 매니저는 “매년 3월에 뽑힌 6명의 멤버들이 1년 동안 샌드페블즈의 모든 공연을 책임지고 활동한다”며 “가을 공연부터 봄 공연까지 마친 뒤 ‘당대 기수’라는 이름을 떼고 정식 기수로 인정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외 활동은 신입 멤버들이 전담하지만 선배와의 교류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 매니저는 “당대 기수들의 연습 지도부터 활동 지원까지 선후배 간의 소통은 계속 된다”며 “꾸준한 접촉을 통해 밴드의 전통과 새로운 기수의 문화를 조화시키려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실 새 없는 1년의 활동 기간, 힘들지만 즐겁다

샌드페블즈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가을 공연, 새터 공연 그리고 봄 정기 공연이 있다. 가을 공연은 3월에 선발된 신입 멤버들이 처음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자리다. 정용빈 매니저는 “선발된 신입 멤버들은 2학기 가을 공연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며 “이를 위해 여름방학 때는 연습을 ‘합숙’이라고 부를 만큼 준비에 매진한다”고 말했다. 새터에서의 공연은 샌드페블즈 멤버들이 가장 짜릿한 순간 중 하나로 꼽는다. 정 매니저는 “수많은 학생들이 우리 공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좋다”며 “신입생

들이 만큼 호응도 대단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실제로 많은 신입생들이 새터에서 샌드페블즈의 무대를 보고 동아리를 지원할 만큼 새터 공연은 반응이 좋다. 마지막으로 정기 공연은 신입 멤버들이 ‘정식 기수’로 인정받는 자리지만 활동을 정리하는 아쉬운 시간이다. 정 매니저는 “많은 지인들이 찾아와 공연을 즐긴다”며 “1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한다”고 덧붙였다. 1년 동안 많은 공연을 하다 보니 그 와중에 난관이 생기기도 한다. 정 매니저는 “멤버들이 공통적으로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연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밴드를 가입한 데에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런 고민을 극복하는 데는 샌드페블즈라는 자부심이 큰 도움을 줬다. 정 매니저는 “선배들도 샌드페블즈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많은 연습을 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관점을 바꾸니 연습 시간이 많다고만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력은 만들어 나가는 것, 열정이 중요하다

정용빈 매니저는 “‘샌드페블즈는 열정과 책임만 갖고 들어오면 된다는 말은 진심이다’”며 “실제로 멤버들이 밴드에 들어와서 악기를 배워가는 경우도 많다”고 학생들의 지원을 독려했다. 좋은 사람을 얻어가는 것도 샌드페블즈를 하며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다. 정 매니저는 “‘공연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 위해 공연을 한다’는 말이 있다”며 “실제로 멤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할 만큼 유대감이 굉장히 끈끈하다”고 강조했다. 후배들의 공연 홍보도 빼놓지 않았다. 정 매니저는 “10월 10일에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정기 가을 공연을 했으며, 당대 기수들이 처음 하는 공연이었지만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샌드페블즈의 공연을 찾아가 보는 것도 캠퍼스의 가을을 즐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2기 최은국



2014년 새터 공연



봄 정기 공연



샌드페블즈 40주년 기념 단체사진

(사)농촌생활발전중앙회 대표이사 정금주 동문을 만나다



전라남도 담양 출신의 정금주 동문은 1963년 서울대학교 농가정학과 5기로 입학했다. 정 대표이사는 “여성에게는 고등교육이 무척 귀했던 당시 부모님은 교육열이 대단하셨던 것 같다”며 회상했다. 정 동문은 당시 미국 유학을 마치고 농가정학과 교수로 온 모수미 교수에게서 농촌영양실태조사, 응용영양학 등 대해 배웠다. 또한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장의 주도로 실행된 프로그램에서 시골 아이들의 열정과 가능성에 감명을 받으며 농촌과 함께 하는 삶을 꿈꿔나갔다.

농촌으로 향하다

대학 졸업을 앞둔 겨울 방학, 정 동문은 친구의 권유로 생활지도직 공채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정 동문은 “근무 전 기초교육을 받으려 갔더니 내가 학생장이 되어 있었다” “학교 다닐 때 반장 한 번 못해본 내가 공채 시험 합격생 학생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 동문은 이곳에서 1년 3개월 동안 4-H 여회원과 생활개선회원들과 협력하며 농촌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식주, 가정관리, 육아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실습한 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지도했다. 시대별로 중점적인 내용은 달랐는데 60년대에는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분식을 장려했고, 생활 개선을 위한 학습구락부를 육성했다. 70년대에는 농가 부업 개량을 위해 조리대, 개수대를 설치했고,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응용영양사업을 도입했다. 또한 농번기에는 농민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탁아소를 운영했다.

더 넓은 세상으로

1979년 정동문은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 주관하고 네덜란드대학제단인 NUFFICE에서 장학금을 지원한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농과대학으로 1년 간 유학을 떠났다. FAO는 세계적으로 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분배가 잘 되지 않아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다고 판단했고 개발도상국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기로 한 것이다. 1년간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 20명과 함께 식량영양 계획을 공부하고 영어도 익혔다. 정 동문은 “영어가 시원치 않아서 노래로 체면을 유지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생일파티에서 생일 축하 노래와 에텔바이스를 선창하곤 했다”고 즐거웠던 유학생활을 떠올렸다. 이후 정 동문은 1982년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일본의 생활개선사업을 시찰했고, 85년, 86년, 88년 3회에 걸쳐 일본에서 생활지도사 연수를 받았다. 67년부터 86년까지 18년간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응용영양사업을

해온 그녀는 자신이 공부하고 실천해온 것들을 책으로 남기기로 결심했고 그간 사업을 논문화하기 위해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석사로 입학했다. 이때 나온 『한국 응용영양사업에 관한 논문』은 한국의 1860여 개 마을을 상대로 실시했던 다양한 응용영양사업을 담고 있으며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농촌, 영원한 일터

현재 정 동문이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사)농촌생활발전중앙회는 2010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대한민국의 농촌생활 발전을 위해 전국 16개 지회 230명의 회원이 모여 활동 중이다. 여성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10월에는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작품품평회도 가질 예정이다. 정 동문은 “한국의 농촌은 들여다볼수록 아름답다”고 말한다. 현재 전국에는 정동문과 같은 10만 명의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생활 개선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며 스스로 농촌을 가꾸고 있다. “농촌도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어 가야하며 노동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말하는 정 동문의 모습에서 한국의 농촌을 향한 애정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후배들에게 한 마디

대학 졸업 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 농촌을 위해 꾸준히 사명을 다해 온 정금주 동문에게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한 마디를 부탁했다. 정 동문은 “진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한다. 잘 가꿔진 꽃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 적성에 맞는 일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헤쳐 나가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 또한 보람 있는 삶이다”며 힘든 목표라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라는 뜻을 전했다. 유난히 높고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정금주 동문과의 인터뷰는 50년 전부터 이어지는 그녀와 농촌이 맺어온 인연과 그 속에 깃든 소소한 추억과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던 값진 시간이었다.

▶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3기 오유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심포지엄 강연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그 열 번째 주인공은 작물생명과학 전공에서 기능성식물의 유전체 및 생명공학 연구를 하고 있는 양태진 교수!



양태진 교수
(식물생산과학부)

양태진 교수는 본교 원예학과에서 학부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연구사를 하다가 2006년부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 전공 교수로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약용식물과 특용작물의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양태진 교수는 현재 기능성 식물 연구실에서 여러 식물의 유전체에 관한 첨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약용식물의 상징과도 같은 인삼의 유전체 정보 해독과 활용을 위한 선도연구인 인삼게놈프로젝트를 8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를 통틀어 거의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것 이외에도 첨단유전체 분석기술과 생물정보 분석을 접목하여 다양한 자원식물의 유전체 연구 및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양태진 교수는 인삼 유전체 해독하여 인삼의 생물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삼 관련 종들의 분류학적 다양성등 인삼의 진화에 대한 연구 업적을 이룩하였다. 또한 중국과의 합동연구를 통해 양배추의 유전체를 해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배추의 분자유전체 연구를 하고 있다. 양배추의 유전체를 해독하여 향후 양배추 유전 육종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양배추의 우수 품종 종자 개발 및 수출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양태진 교수는 농생대 학생들에게, 농학도들은 세상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앞으로 인류를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태진 교수가 추천한 책은 바로 이것이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한비아 저, 푸른숲)

양태진 교수가 추천한 책은 세계일주 여행가, 오지여행가, 국제구호전문가로 알려진 한비아씨의 삶의 보고서와 같은 체험 글인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이다. 이 책은 저자가 우리나라 혹은 중국 여행기를 쓰고 오지탐험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다가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굶주림에 고생하는 세계 각지 현장에서 오지 사람들의 삶을 5년간 직접 체험하고 구호 활동을 벌이면서 겪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그만이 느끼는 삶의 철학과 섬세함을 에세이 형태로 쓴 책이다.

세계여행하면 보통 낭만적인 상상으로 시작되지만 저자는 세계여행 후 오지여행을 하고 중국에는 온갖 재난에 고생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내전으로 고생하는 아프가니스탄 화염 잔해 속에서 본 희망, 내전과 가뭄으로 한톨 식량 생산을 하지 못하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본 한 알의 씨앗의 의미 등을 포함해, 이라크, 네팔, 팔레스타인, 인도네시아 쓰나미 대참사에서 경험하고 그 만 불잡을 것 같은 깨알 같은 감정, 북한에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마고원에서 무병씨감자를 생산하는 현장 등을 잔잔하게 기술하고 있다. 처절하게 위험한 순간, 목숨의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감동적인 생각들을 꼬집어낸다. 아래는 아프리카 구호에서 느낀 점을 써 놓은 글이다.

“작년에 한정된 구호 자금 때문에 한 마을은 씨를 배분하고 그 옆 마을은 주지 못했다. 안타깝게 비가 오지 않아서 파종한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씨를 나누어준 마을은 씨를 심어 놓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수확기까지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는데, 옆 마을은 아사자가 속출했다고 한다. 똑같이 비가 오지 않는 조건이었음에도 단지 씨앗을 뿌렸다는 그 사실 하나가 사람들을 살려놓은 것이다. 이곳에서 씨앗이란 존재만으로도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다.” (75쪽)

양태진 교수는 약 7년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아직도 위의 내용을 읽으면 생생하게 그 상황이 펼쳐지는 듯하다고 한다. 가볍게 읽혀지지만, 세상에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서 젊은 농학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제시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또한, 이 책을 읽는 동안 무한한 꿈과 정형화되지 않은 자기만의 세계를 호기 있게 생각해 보고 설계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책을 추천해 주었다.

〈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은?〉

양태진 교수에게 다음 호의 주인공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음 호의 주인공으로 추천받은 교수는 식물생산과학부 원예과학 전공에서 채소육종을 연구하고 있는 강병철 교수. 강병철 교수의 추천 도서는 다음 호에 공개!

〈2014.7.8. 환경일보〉

농진청과 서울대학교 농생대 손잡는다 - 축산업 발전 위한 연구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맞손을 잡는다. 두 기관은 7월 1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축산과학기술 개발과 협력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과 교육, 보급과 산업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와 닭, 돼지 등 가축 관련 기술 개발과 육종, 번식, 영양, 조사료, 유가공과 육가공 등 전통 축산학과 생명 공학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이어갈 방

침이다. 아울러, 식품과 친환경 축산, 동물 질병을 포함한 경제 동물과 관련된 파생 산업을 찾아내 연계 기술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서로 기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동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홍성구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 간의 연구 개발과 기술의 산업화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FTA와 가축 질병 등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영환 기자

〈2014.8.24. 한겨레뉴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서울대가 왜 ‘걸림돌’인가

“서울대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백운산은 광양 땅...”
21일 오후 6시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울대 남부학술림 광양사무소 앞. 퇴근길에 삼삼오오 모여든 시민들이 금세 70여명으로 불어났다. 시민들은 대중가요 ‘독도는 우리 땅’의 가사를 바꿔 부르며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반드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광양시민들은 지난 6월부터 석달째 서울대 학술림 앞에서 목요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에는 광양의 시민단체와 의회 등 150개 단체가 돌아가며 참여한다. 왜 서울대 학술림이 전남 백운산에 있고, 시민들은 왜 학술림이 서울대 소유로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걸까. 해발 1222m인 백운산은 백두산에서 시작된 백두대간이 금강산, 소백산, 지리산을 거쳐 바다로 이어지는 종점에 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지리산과 연결되어 식물 1000여종, 곤충 1500여종이 서식하는 생태자원의 보고이다. 이런 특성에 주목한 일제가 1912년 동경제국대학 학술림을 이곳에 설치했다. 백두산·금강산과 더불어 한반도에 설치한 3곳 중 하나였다. 일제는 산지 주민들한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빼앗다시피 해서 학술림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학술림은 해방 뒤 미군정청이 서울대에 80년간(2026년까지) 대부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 목적에 활용돼왔다. 근거인 대부계약서는 1948년 정부 수립으로 미군정이 해소되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상황이다. 다만 학술림의 소유권은 정부 수립 이후 농림부를 거쳐 문교부로 이관됐고, 현재는 교육부에 넘어가 있다. 시민들은 2010년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된 뒤 서울대가 남부학술림 162.1km를 학교 재산으로 무상양도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운산 지키기’에 나섰다. 광양 전체 면적 458km의 18%를 차지하는 80km(학술림 중 광양 구역)가 국유지에서 법인화된 서울대로 넘

어가면 백운산과 광양시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박종영 서울대 남부학술림장은 “산림 연구는 서울대보다는 나라와 사회, 국민을 위해 이뤄진다. 서울대는 공적 법인인 만큼 교육용 재산을 임의로 처분·매각할 수 없는 여러 장치들이 있다. 무상양여로 자유로운 학술 연구가 보장되면 더 큰 공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양 백운산, 대구 팔공산, 부산 금정산, 울산 영남알프스(가치산), 전남 무안·신안갯벌, 인천 강화갯벌 등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다 돌연 절차가 중단된 백운산의 열기가 가장 뜨겁다. 광양시민 15만명 중 8만3000여명이 국립공원 지정 촉구 서명에 참여했을 정도다. 서명부는 국회와 정부에 전달된 상태다. 주민들의 요구에도 환경부는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지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국립공원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짜기로 했다. 여태껏 관리에 치중하다 보니 국토 면적 대비 적절한 공원 면적이 얼마인지, 잠재자원 중 어느 유형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지정을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백운산을 두고는 생태자원은 우수하나 문화자원은 부족한 편이고, 토지 소유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 지정해도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선두 환경부 공원생태과 서기관은 “기본계획이 나온 뒤 개별 요구들을 살펴봤다. 하나씩 수용하다 보면 전체 국립공원의 명성과 가치가 낮아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안관욱 기자

〈2014.8.28. 연합뉴스〉

몬산토코리아, ‘몬산토 장학기금’ 수여식

몬산토코리아(대표 벤저민 마크 후드리스)는 28일 서울대학교에서 ‘몬산토 장학기금’ 수여식을 했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서울대 농생명대 식물생산과학부 대학원생 2명에게 전달됐다. 몬산토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농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대에 15만 달러(약 1억6천만원)를 전달했고, 이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이날 첫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석하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교수와 하비 글릭 몬산토 아시아지역 정책 및 과학부문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비 글릭 부사장은 “몬산토는 기후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미래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확량을 증대시키고 가뭄 등 환경스트레스에 잘 견디는 작물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농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욱 혁신적인

차세대 농업기술 개발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농업기업인 몬산토는 2009년부터 ‘비첵-볼락 국제장학프로그램’을 진행해 미래 농업계를 이끌 전 세계의 젊은 과학자를 발굴, 육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25개국에서 총 64명의 학생을 지원했다. 국내에서는 2010년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박사과정 재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된 바 있다.



농생대 기금출연 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다음은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 대학에 기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기금출연 (2014. 01. 01 ~ 2014. 09. 30.)			누적금액 : 102,500,000원	
1000만원 이상			(주)에이티엘	5,000,000
졸업생 故이육진	30,000,000	제노레버코리아	2,000,000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25,000,000	한국마사회	5,000,000	10만원 이상
		프로첼코리아	5,000,000	KBS드라마국
100만원 이상			(주)뉴보	5,000,000
(주)고추와 육종	6,000,000	(주)베스트텍코리아	3,000,000	
고려시스템	3,000,000	(주)서울신문사	3,000,000	
(주)한성 T&I	2,000,000	(주)한성티앤아이	2,000,000	
우상규	1,000,000	(주)뉴보	4,000,000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안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전화 : 02)880-4510
농생대 홈페이지 : <http://cals.snu.ac.kr>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안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전화 : 02)880-4510
농생대 홈페이지 : <http://cals.snu.ac.kr>

기금출연(2000. 01. 01 ~ 2013. 12. 31)			누적금액 : 5,166,000,000원	
(유)PPG코리아	강신백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직원	김병동 (62)농학	김호탁 (58)농경제학	박낙희 (83)농업교육
(제)목운문화재단	강예안 학부모	김봉영 에버랜드사장	김희발 (86)동물자원과학	박수철 (82)산림자원
(제)유연정학회	강창희 (66)농경제학	김상곤 농업교육	나승일 (81)농산업교육	박시우 (65)농생물학
(주) 녹색식물연구소 (78)원예	고 강석권, 고 최하자 유족	김상돈 (44)축산학	노희영 (76)농화학	박원규 (60)농공학
(주) 프로첼코리아	고 이은웅 교수 유족 (72)농경제학	김석구 (55)임학	농생대 기획실	박은우 (73)농생물학
(주)내츄로바이오텍	고종열 (87)축산학(박사)	김성배 (85)농생물학	농생대 동창회	박정현 (64)농업교육
(주)넥스캠	고희중 (76)농학	김성수 (63)농업교육	농생대 수목원	박종국 (57)농화학
(주)생명의나무	고희중, 김성남, 안희성, 노희영 기부보합 만기액	김성일 (76)임학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박창서 (61)농경제학
(주)서울신문사	광주MBC	김수민 (2003)환경재료과학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박창호 (58)임학
(주)숲에서	구자환 (81)농학	김영권 농학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박필선 (90)산림자원학
(주)신농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김영도 (68)축산학	농학과 동기회	박효근 (59)농학
(주)아데나	권숙환 학부모	김영배 (85)축산학	농협중앙회	반성환 (50)농경제학
(주)케이티엔에프	권정혁 (60)농학	김영복 (72)농공학	농화학 동문회	배동걸
(주)하이스	권 철 (59)축산학	김영성 (58)농학	도원회 (61)농화학	백남천 (81)농학
(주)엘씨에스	김경옥 (68)농공학	김영성 (59)농경제학	동 문	백종현 (79)임산가공학
53학번 동기회	김관수 (82)농경제학	김영호 (73)농생물학	동 문 (71)농화학	부경생 (60)농생물학
59학번 동기회(재미회원)	김광호 (68)식품공학	김유용 (83)축산학	동화특수산업(주)	브이에프티
69학번 동기회	김국형 (83)농생물학	김유용, 윤원희	류관희 (63)농공학	서문원 (74)농학
69학번 여성동기회	김규옥 학부모	김민식 (64)농학	류덕희 (주)경동제약 대표이사	서민영 서울대직원
70학번 동기회	김근숙 농화학	김장현 서울대직원	류순호 (55)농화학	서병룡 (69)농공학
71학번 동기회	김기선 (74)원예학	김정한 (75)농화학	무영 (55)농공학	서울신문사
81학번 원예동문동기회	김동암 (52)축산학	김종무 (59)농학	문성훈 (86)식품공학	서진호 식품생명공학 교수
가나바이오텍(주)	김동윤 (48)농경제학	김진도 (81)농업교육	문지예 (77)식품공학	서학수 (65)농학
간접연구경비회계지원금	김동태 (62)농경제학	김진우 (2006)산림과학부	문태화 (71)식품공학	성호경 학부모
강미정 농가정학	김명중 (70)임산공학	김진의 (59)축산학	바이오사이드테크	손정익 (75)농공학
강병철 (86)원예학	김무열 (64)농공학	김태수 (66)임학	박관화 (62)농화학	식물분자유전육종센터
강석근	김민균 (82)농화학	김현중 (83)임산공학	박기주 (69)농업교육	신재익 (60)농화학

기금출연(2000. 01. 01 ~ 2013. 12. 31)

산젠타코리아(주)	이동근 (82)조경학	이필우 (53)임학	주바이오포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신한풍 (59)농학	이동찬 (82)농공학	이한강 (69)임학	주베스트텍코리아	최고농업정책과정 14기
신현호 (79)원예학	이두이 (66)농학	이현수 (60)농화학	주블루비에스	최고농업정책과정 15기
신희순 (69)잠사학	이득용 (52)농경제학	이형주 (66)농화학	주블루인바이로먼트엔텍	최상호 (78)식품공학
실험누리과학관 (82)대학원	이명훈 (69)농경제학	이 홍 (70)농화학	주비르엔마이크로	최연홍 (56)잠사학
심용섭 (70)농업교육	이무하 (67)축산학	이희석 (57)농생물학	주비비씨엔에프	최윤재 (73)축산학
셀테크	이미경 (74)농화학	이희재 (78)원예학	주삼우종합건축사무소	최인규 (80)임산공학
안동만 조경학 교수	이미순 (56)농학	일본동문회	주생명과학기술	최정우 父 (2000)생물자원공학부
안동환 (86)농경제학	이병근 (67)농경제학	임경순 (54)축산학	주센스메트릭스	최진용 (84)농공학
안성규 (76)임학	이병목 (64)농생물학	임승빈 조경학 교수	주세에서	최학근(최윤희 학부모) (10)응용생명
안원영 (55)임학	이병일 (57)원예학	임용재 (67)농경제학	주신택	최홍림 (71)농공학
양태진 (85)원예학	이병창	임용택 (54)농경제학	주씨이퍼인텔리전스	투플러스코스팜(주)
양호석 (57)농화학	이삼희 (66)농화학	임정목 동물생명공학 교수	주씨에스텍	패션푸드(주)
엄기덕 (46)농화학	이상기 (79)농화학	장우상 (63)잠사학	주아데나	프로셀코리아
에스엠에이엔지니어링(주)	이상영 (65)잠사학	장진성 (78)임학	주에스씨아이	피타코이드(주)
에스위태(주)	이상우 (89)임학	장창순 (53)농경제학	주에스씨에프	하종규 (75)축산학
연은실	이상훈 (88)조경학	장태평	주에스이오	한국마사회
연동해 (74)조경학	이석하 (78)농학	장학균 학부모	주에이티랩	한국전파기자국(주)
오기봉 (78)농화학	이성우 지역정보 교수	장휴동 (59)농경제학	주에이피디	한상율 (72)농업교육
오평환장학금 적립금	이수정 (65)농가정학	재일동창생	주에코엘이디라이트	한성T&I
온경용 (79)원예학	이승구 (66)농화학	전창후 (83)원예학	주에프엔피	한재용 (80)축산학
우리농장	이승환 (80)농생물학	정구민 (84)축산학	주여러분의 천년초	한준호 (64)임학
우무일 (64)임학	이시혁 (80)농생물학	정민섭 (59)임학	주오리엔탈드림	현익송 (61)잠사학
우보명 (57)임학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정윤희 (56)임학	주유원테크	현정오 (66)농생물학
우석상 (83)임학	이윤규 (77)농학	정일영 (62)축산학	주이레텔	현진호 (88)천연섬유학
원광엠에프디(주) (86)농화학	이완주 (63)잠사학	정중훈 (77)농공학	주이지코스	호영하이텍
원후식 (56)농생물학	이용창 父 (99)생물자원공학부	정주상 (77)임학	주장수로	홍상욱 (83)원예학
유상렬 (78)식품공학	이용환 (79)농생물학	정진구 (65)농공학	주지이오픈	홍인식 (79)원예학
유상철 (64)축산학	이우신 (75)임학	정진화	주지지에프바이오	홍종일 (80)축산학
유원에코사이언스	이인모 (65)농경제학	정현석 (63)농화학	주주비로	홍중혁 농경제학 석사 홍준표 조부
유원에코사이언스(주)	이인복 지역시스템공학 교수	정희석 (60)임학	주투플러스코스팜	화인엔터프라
유한김벌리	이장희	제10기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주프로셀코리아	환경지도자고위과정
윤계섭 (53)임학	이재갑	제11기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주하이스	황인규 (76)농생물학
윤여창 (74)임학	이재진 (65)농학	제연호 (86)천연섬유학	주한국에그로바이오	CALSP
윤용인 (57)농가정학	이전제 (70)임산가공학	조도현 서울대직원	주한성T&I	KBS한국방송
윤원희 김유용교수부인	이정식 (69)원예학	조민성 父 (97)농경제학사회학부	주해냄테크	MBC문화방송
윤익건설	이정훈 父 (2000)식품생산과학부	조성인 (77)농공학	주현우그린	RNL생명과학(주)
윤해정 (90)임산공학	이종영 (70)임산가공학	조재영 (39)농학	주IFC	
윤희진 (62)축산학	이준호 (74)농생물학	조종수 (66)잠사학	주SK텔레콤	
이건호 (67)농경제학	이중용 (77)농공학	주이관희 프로덕션	직업과정CEO 과정	
이경국 (78)	이철영 한백과학 대표	주고추와육종	진정우 학부모	
이광희 (75)농학	이철우 (61)농경제학	주내츄로바이오텍	차상석 연세대	
이기훈 (91)천연섬유	이춘만 (73)임학	주녹색식물연구소	창업지원센터	
이내수 (58)농경제학	이춘한 (2009)동물생명공학	주누보	채수군 (54)잠사학	
이돈구 (65)임학	이태호 (74)농경제학	주밀투밸런스	채영암 (60)농학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안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전화 : 02)880-4510 농생대 홈페이지 : <http://cals.snu.ac.kr>

[동문동정]

▶ **윤형주**(잠사학과 석사 85)동문이 9월 19일 대산농촌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교수동정]

▶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김학진 교수**
는 지난 7월 13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미국/캐나다 공동 연례 농공학회 (ASABE) 학술대회에서 2013년도에 SCI저널인 Transactions of the ASABE에 교신저자의 자격으로 게재된 “Validation Testing of Soil Macronutrient Sensing System”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Superior Paper Award를 수상하였다. 본 논문은 개발한 이온센서 어레이를 이용하여 토양 내 질소, 인산, 칼륨 이온의 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정밀농업용 센서 개발 연구로 실제 토양시료에 적용하여 그 유효성을 보고하였다.



▶ **식물생산과학부 최도일 교수** 연구팀의 연구과제 ‘고추 표준 유전체 완성 및 정보 분석’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고 우수성과에 대한 수여식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 **농생명공학부 한재용 교수**는 생식선 줄기세포 원천 기술을 이용한 형질전환 조류 생산 시스템에 고효율의 유전자적중 기술인 유전자가위법을 도입하여 유전자 기능유전체학 등의 기초연구, 신약개발 및 치료물질 대

량생산을 위한 형질전환가금 품종개발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미국 학술원 회보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8월 19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되었다.



▶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정종훈 교수** 연구팀은 비타민 B6 결합 핵산 전달체와 sISHMT1을 이용한 유전자 암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정 교수팀은 세포의 생장이나 증식에 필요한 대사에 작용하는 비타민 B6를 폴리에스트 이민과 결합, 높은 유전자 전달 효율을 갖는 ‘비바이러스성 핵산 전달체’를 만들어낸 뒤, 이를 암 발생 작용에 관련된 세린 하이드록시메틸전이효소(SHMT1) siRNA(small interfering RNA)와 함께 암세포에 투여했다. 이번 성과는 생체재료 및 생명공학 분야 권위지인 ‘바이오머트리얼즈(Biomaterials; 영향지수(impact factor): 8.312)’의 최신 온라인판에 게재되었고 (‘Nucleotide biosynthesis arrest by silencing SHMT1 function via vitamin B6-coupled vector and effects on tumor growth inhibition’), 현재 국내 및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임상실험 계획 중에 있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및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4508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8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평창그린바이오 T.(033)339-5633 F.(033)339-5547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7-4550
- 원예생명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 산림환경과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 · 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물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7-4906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업 · 자원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농산업교육과 T.880-4830 F.873-2042

협동과정 농업생명유전체학 T.880-4901 F.873-2039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T.871-0211 F.871-0230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학술림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수원) T.(031)293-0313
F.(031)293-0314
(평창) T.(033)339-5901
F.(033)339-5903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농학도서관 T.880-4774~5 F.884-0182
농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88-4847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3-0324 F.(031)294-8527
국가농림기상센터 T.871-0234 F.871-0230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T.880-4920~1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공평이병원생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소 T.880-4945 F.873-5410
세균의사소통창의연구단 T.880-4686 F.873-2317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2 F.873-2039
식물분자유종사업단 T.880-4978~9 F.875-4978
농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2-7670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730 F.886-4898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업공학실 T.880-4619
식품공장 T.880-4824

[동창회 소식]



▶ 상록탑 조명 시설 보수

농업생명과학대학 200동 옆에 위치하고 있는 상록탑은 농생대 동창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2008년 5월 설치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조명 시설이 노후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을 2014년 9월 2일 새로운 LED 조명 시설로 교체하여 상록탑을 야간에도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상록탑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교육 100주년 및 동창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하였다. 관악캠퍼스 내 농업생명과학대학 건물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늘로 향하여 돌아나는 새싹을 형상화했다.

★ 소식을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대외협력 · 홍보팀]
(T. 880-4510, rjiang@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